

충청남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현황 및 발전방향

Chungcheongnam-do Infant Traffic Safety Supplies Support Projec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김지연*
Kim, Ji-Yeon

요약

본 논문에서는 충청남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과 운영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보급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와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Keywords : 충청남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카시트, 안전세트

1. 서론

충청남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사업을 시행한 2020년에는 두 자녀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부터 더욱 사업을 확장하여 출생 신고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하여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보급하고 있다.

2. 본론

2.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충청남도에서는 출산율 감소의 사회현상을 극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생아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망사고의 원인 1위가 교통사고이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카시트 착용률이 40%에 그쳐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하면,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화되었다.(개정, 2018.3.27.) 따라서 충청남도 지자체에서는 영유아 교통안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2. 사업 운영방법 및 지원물품

충청남도는 15개의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시·군별 자체적으로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운영하되 도에서 사업비 절반을 지원받고 있다. 업체 선정에 있어 각 시·군별 부모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용품 업체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의견을 반영하여 시·군별로 선택한 상품을 보급하고 있다. 지원되는 교통안전용품은 영유아 카시트와 교통안전세트가 있으며, 택일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세트는 어린이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처를 위한 휴대용 안전용품 세트로 차량용 공기청정기, 휴대용 소화기, 다기능 경광봉, 구급함 키트 및 옐로카드로 구성된다.

2.3. 사업의 진행현황

본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20년에는 다자녀 가정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유아 카시트 3,935대, 구급함 463대가 보급되었다. 2021년에는 보급대상을 확대하여 영유아 카시트와 대체상품인 안전세트의 보급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는 8,915대로 전년도 대비 약 2.3배 보급률이 증가하였으며, 안전세트는 1536개로 약 3.3배 보급률이 증가하였다. 현 2022년에는 출산율에 따라 보급수량이 정해질 것으로 나타난다.

*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ptkjy@childsafes.or.kr

2.4. 사업의 기대 및 발전방향

본 사업은 저출산 및 육아환경 개선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시작되었으나 무엇보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원 용품으로 안전벨트의 역할을 하는 카시트 보급은 영유아 사망사고 1위인 교통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었기에 영유아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충청남도에서 2021년 신청자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용품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그렇다 30.1%, 그런 편이다 31.1%, 보통이다 21.1%, 그렇지 않은 편이다 9.5%, 전혀 그렇지 않다 8.5%로 응답자 대부분이 지원받은 물품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품 성능 및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면,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 2년이 넘은 이 시점,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에 대한 인지도조사 결과, 지원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인식이 49.3%, 알고 있다는 인식이 24.7%로, 모른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군에서는 홍보물 배부, 지역신문 및 반상회를 통해 홍보자료를 기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 내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이 모범사례가 되어, 지역 내 거버넌스와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도민들의 인식과 자부심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영유아는 착용한 경우 대비 사망률이 3.6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진국에 비해 영유아 카시트 착용률은 미비하며, 경제적 여건으로 카시트 용품 보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충청남도는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본 사업은 육아의 안전성과 영유아 교통사고 예방을 높여 충청남도 도민의 호응도와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충청남도는 도민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청남도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어 현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확대하여 전국 시·도에 적극 활용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203020000>

조 성,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충남연구원 (2021) pp.7-28.

도로교통공단 공단보도자료, https://www.koroad.or.kr/kp_web/krPrView.do?board_code=GABBS_050&board_num=133179